

## 유리 제품 품질 인증 및 안전 검사 실시

1962년 5월 21일 설립된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의 지난 36년 간 조합 조직력은 연도별 기록은 있었지만 평균 80~90%의 비교적 높은 조합 가입율을 보였다.

1962년 14개 조합원으로 출발한 조합은 1978년에 71개, 1977년 56개의 조합원으로 체계를 갖췄으며 IMF이후 국내 및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90년대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01년도에는 물유리 제조업 6개 업체가 가입, 현재 47개 업체(2002년도 1월기준)가 가입돼 있다. 현재 국내 유리제품 제조업체 수는 약 90여개 업체로 추정된다. 이 중 용해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약 70여개, 나머지 20여개 업체는 임대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조합원 업체의 품목별 업체수를 살펴보면 유리병 제조업 16개사, 산업용 유리 제조업 10개사, 유리식기 제조업 13개사, 물유리 제조업 6개사, 판유리 제조업 2개사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유리 제조업체는 수동 업체로 전체 유리 제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영세한 편이다. 국내 유리 산업이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해 다시 한 단계 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산업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리공업 과제와 전망을 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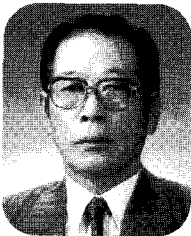
일단 1980년대 이전 유리병 제조업은 우수한 특성을 갖춘 포장 용기로서

“

다른 소재의  
일회용 용기  
개발로 성장세

주춤

”



윤국현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1969년 12월 삼정유리공업사 설립
- 1971년 2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 피선(被選)
- 1979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1995년 2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피선
- 1996년 2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재활용협의회 회장 피선
- 1997년 3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중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유리재활용협의회 회장 역임 중

재사용되는  
장점 살려 유  
리병  
사용 가능품목  
확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각종 일회용 대체용기의 개발과 함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손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용기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유리병업체는 약 25개 업체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수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고품질을 통한 수출 활성화와 실용 강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리병 제조업체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체 용기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유리병의 최대 장점인 재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유리병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리 식기류는 해방 이후 컵류에서부터 시작, 원료 배합에 의한 본격적인 유리 식기 홈세트가 개발되면서 유백색의 도자기와 유사한 식기류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크게 유행했다.

유리식기는 생활 양식의 서구화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수입 유리 식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입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 수입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OECD가입 이후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 및 동남아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리 식기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용 유리는 해방 후 의약용 유리기구에서 발전, 실험용 이화학용 유리가 제조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의해 국내시장이 거의 잠식됨에 따라 현재는 몇 개 업체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용 유리는 조명등용 유리, 커피포트, 믹서기, 자동차 렌즈용 유리, 전자렌지 유리, 각종 조명용 카바유리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점차 타 재질로(주로 PC제품)로 대체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금형 기술의 개발 및 수요치의 디자인 요구에 맞는 생산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판유리는 현재 금강고려화학(주), 한국유리공업(주) 2개 업체로 복층유리, 강화유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축용과 자동차용으로 구분된다.

건축용 유리는 판유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자동차용으로 약 25%, 나머지는 철도, 선박, 가구, 식기, 가전제품 등에 쓰이고 있다.

판유리의 소비경향을 살펴보면 크기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투명 유리에서 컬러화 및 기능화되어 점차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위주의 생산에서 사용자(소비자) 위주의 주문형 생

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동차용 유리의 경우에는 고기능 제품이 점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성능의 제품이 계속 개발, 시판되고 있다.

판유리 시장은 95년 이후 공급과잉과 건축 경기의 불황 등과 맞물려 가공 및 판매, 시공 등으로 분류되었던 업종이 통합돼 복합 유리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판매에 주력했던 업체들이 시장 영역확보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가공산업은 물론 공사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유리개발 연구는 국내 및 몇몇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맞는 제품을 설정하여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NEW GLASS는 기존 유리와는 달리 통신, 정보, 에너지, 화학, BIO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사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OPTICAL FIBER, FUSED SILICA TUBE, IC PHOTOMASK, 박막 COATING 유리 등 일부가 제품화 되어 있다.

21세기 NEW GLASS 시장 규모는 기존 유리제품 시장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NEW GLASS는 연구 단계에 있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오랜 역사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어 일부는 개발이 이루어져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주력해 나간다면 21세기의 국내 유리 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리산업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조합원 업체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 업체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Internet Homepage를 구축하여 국내·외 바이어 소개, 각종 전시회 개최,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제공, 유리 제조업체 애로 사항을 파악, 정부부처에 건의,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여 조합원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유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유리제품 품질 인증 및 안전 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합내에 유리재활용협의회를 설립, 지난 2001년 2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유리 재활용 촉진 사업, 유리병회수 및 재활용 사업, 폐유리를 이용한 각종 타용도 기술 개발 사업, 홍보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원으로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끊임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ko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리업체  
경영난이  
가중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어 소개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